

강릉시 가뭄대책 사업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 조속 추진 지원

- 연곡 지하수저류댐, 도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사업 등 강릉시 가뭄 대책 관련 주요 사업 대상지 현장 점검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1.28일(수) 강릉시 가뭄 피해 예방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관계부처 및 현장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 강릉 가뭄대책사업 현장점검 개요 >

- ▶ (일자) '26.1.28.(수) / ▶ (장소)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 평창 도암댐 등
- ▶ (참석자)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평창군 관계자 등

지난 '25년, 강릉시는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5%까지 하락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시 오봉저수지와 급수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재난 사태를 선포(8.30일)한 직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강릉 지역 공공 관정을 신속히 설치하고, 인근 하천·지하수·댐 등 추가 수원 확보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여건 마련을 위해 가용자원,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밀착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릉시의 근본적인 대체수원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사업(고랭지밭)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곡 지하수저류댐」은 인근 지역의 지하층에 인공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모을 수 있는 저류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취수하여 강릉시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며('26년 예산 29억원),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사업」의 경우, 당초 수질 문제로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도암호(평창군)의 수질을 개선하여 강릉시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질 저하의 원인인 고랭지밭 유실토양 유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26년 예산 82억원).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강릉 가뭄 피해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으며,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강릉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의 가뭄 피해 예방 사업*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6년 예산을 123억원 증액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집행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 도암호 수질개선사업 107억원, 삼척 원덕 지하수저류댐 설계비 2억원, 고성 지하수저류댐 전주기 관리 기술개발(R&D) 11억원, 강릉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R&D) 3억원

한편 원주지방환경청 김보미 하천국장은 “강릉시로 적기에 용수를 공급하는 도암호 주변의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가뭄 해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준공을 위해 '27년 계속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

※ 사전 공유내용에 기반하여 작성한 것으로, 현장 의견 수렴 후 필요시 추가 보도자료 배포 예정

이에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은 정부의 중요 역할인 만큼, 가뭄 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릉시 가뭄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검토하여 향후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책임자	과 장	박환조 (044-214-2570)
		담당자	사무관	김재오 (sookyo@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사무관	이진영 (dwd6165@korea.kr)
		담당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사무관	장정호 (jjh4054@korea.kr)